빛고을서 ATP 국제테니스대회 '열전'

13일 광주 남구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개막하는 '2019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대회'에 참가하는 '코리아 사총사'. 왼쪽부터 권순우, 이덕희, 정윤성, 남지성.

'2019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오늘 개막

메튜 앱든·조던 톰슨 등 32개국 선수 400여명 참가
권순우 등 '코리아 사총사' 우승 도전…명승부 예고
여성 동호인, 청·장년대회도 병행…흥행열기 고조

세계 각국 유수의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테니스의 진수를 보여줄 '2019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대회'가 13-19일 남구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개최된다.

서울과 부산, 광주로 이어지는 국내 3주 연속 챌린저대회의 마지막 대회로 2016년 창설돼 올해로 4번째 행사다.

ATP(세계남자프로테니스연맹), KTA(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테니스협회 주관으로 광주에서 단일 종목으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인 이번 대회에는 32개국 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총 상금 5만 달러 규모인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며 단식 48드로, 복식 16개드로로 진행된다. 단식 우승자에게는 80점의 랭킹포인트와 7천2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광주오픈은 서울(4월29일-5월5일)과 부산(6-12일)에 이어 열리면서 이전 대회보다 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대거 참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예상된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는 메튜 앱든(호주·51위)이다. 오른손잡이로 강력한 포핸드가 주무기다. 이어 조던 톰슨(호주·67위)를 비롯해 캐나다 유망주로 불리는 브레이든 슈널(캐나다·110위)의 명승부가 예상된다.

2016년 광주오픈 우승자 리카르다스 베란스키(리투아니아·98위), 2017년 두바이챔피언십에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를 꺾은 에브게니 돈스코이(러시아·123위), 마르코스 바그다티스(사이프러스·전 세계 8위 현 138위)도 복병으로 주목받고 있다.

권순우(당진시청·152위)를 비롯해 이덕희(서울시청·263위), 정윤성(의정부시청·261위), 남지성(당진시청·357위) 등 국내 상위랭커들도 총출동한다.

권순우는 올해만 두 차례 챌린저대회 정상에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번 시즌 안에 100위 벽을 깰 가능성이 높다.

이덕희는 청각장애 3급이라는 장애를 딛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7년 130위까지 올랐던 이덕희는 이번 대회를 통해 100위권 재진입에 도전한다.

정윤성은 주니어랭킹 최고 3위(2016년 3월21일)를 기록했고 2016년 프랑스오픈주니어 남자 복식 준우승을 차지한 후 2017년 프로에 입문했다.

남지성(국군체육부대)는 광주시테니스협회 추천(와일드카드)으로 대회 단·복식에 출전한다.

지난대회에서 복식 우승, 단식 준우승을 차지했던 남지성은 올해 서울오픈에서 이덕희를 꺾고 약 8개월만에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광주오픈기간 동안 아마추어 대회를 동시 개최해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흥행몰이에 나선다. 오는 17일 여성동호인대회, 18-19일 청·장년 대회를 개최해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하며 광주오픈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테니스 대회에서는 보기 드문 댄스팀과 함께하는 색다른 응원문화를 조성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 경기는 SPOTV로 생중계된다.

강철성 광주시 테니스협회장은 "서울과 부산, 광주까지 3개 대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예년보다 수준 높은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대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제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대회 기간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KIA, 해즐베이커 'out'

새 외국인 외야수 프레스턴 터커 영입 추진

KIA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선수로 외야수 프레스턴 터커(Preston Tucker 좌투좌타·사진)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프레스턴 터커는 13일 입국해 메디컬 체크 등을 거칠 예정이며, KIA는 결과에 따라 터커와 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출신인 프레스턴 터커는 신장 183㎝ 체중 95㎏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동안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243경기에 출장 133안타(23홈런) 68타점 65득점 타율 0.222를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577경기에 나서 629안타(101홈런) 415타점 369득점 타율 0.281를 기록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신시내티 레즈 등 메이저리그팀에서 뛴 터커는 올 시즌 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 트리플A팀인 샬럿 나이츠에서 24경기에 출전 타율 0.284, OPS 0.771를 기록했다.

터커는 강한 스윙을 바탕으로 한 장타력이 강점이며, 선구안과 컨택트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KIA는 지난 10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외야수 해즐베이커의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

이로써 해즐베이커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타율 0.146, 2홈런, 5타점의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시즌 1호 퇴출 불명예와 함께 짐을 싸게 됐다.

/박희중 기자

지난 8일 막을 내린 제97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여자 고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순천여고 정구팀이 김현순 코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여고 정구팀 '적수가 없다'

동아일보기, 올 시즌 두번째 개인전 독식…단체전 2관왕

'여고 최강' 순천여고 정구팀에게 적수는 없었다.

올 들어 2번째 개인단식에 출전한 4명 모두 4강에 진출하는 진기록은 물론 단체전까지 우승하면서 2관왕을 차지했다.

순천여고는 지난 8일 경북 문경 국제정구장에서 끝난 제97회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여자 고등부 개인단식에서 김운진(2년)이 우승, 강은영(3년)이 준우승, 박빛나(2년)·김민주(3년)가 3위에 오르며 개인단식 메달을 싹쓸이했다.

지난 3월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정구대회에서 한국 정구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단식에서 4명 모두(우승 강은영, 준우승 김민주, 3위 박빛나·김운진)가 메달을 독식하며 진기록을 세웠던 순천여고 정구팀은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진기록을 작성했다.

개인단식 준결승에서 팀 동료 김민주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김운진은 역시 준결승에서 팀 동료 박빛나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온 강은영에게 게임스코어 4대1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순천여고는 단체전에서도 충북 충북여고와의 준결승전에서 3대0으로 승리한 뒤 결승전에서 경북 조리과학고를 3대0으로 제압하며 올 시즌 2관왕에 등극했다.

이밖에 개인단식과 단체전에서 대회 2관왕을 달성한 김운진은 김여진(3년)과 조를 이뤄 개인복식 결승에 진출했지만, 경북 조리과학고의 김진아-문혜원(이상 1년)조에 게임스코어 2대4로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며 3관왕 달성은 실패했다.

순천여고 정구팀은 이번 대회에서만 단체전 우승 포함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한편, 순천여고는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제24회 장원배 전국중·고정구대회에서도 강은영이 개인단식에서, 김운진-김여진조가 개인복식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최강팀'임을 증명했다.

/박희중 기자

최혜진이 12일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LPGA 제공

2개대회 연속 우승 최혜진 '시즌 2승 선착'…상금 1위

최혜진(20)이 국내 여자 프로 골프 무대 접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혜진은 12일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7언더파 65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우승했다.

KLPGA챔피언십 제패로 시즌 첫 우승 물꼬를 튼 지 14일 만에 두 번째 우승을 거둔 최혜진은 맨 먼저 2승 고지에 올랐다.

KLPGA챔피언십에 이어 열렸던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을 건너뛰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우승 상금 1억4천만원을 받아 상금랭킹 1위(3억7천104만원)로 뛰어오른 최혜진은 대상 포인트에서도 1위 박채윤(25)에 9점차 3위로 올라섰다. 평균 타수에서도 1위 조아연(19)을 바짝 따라붙었다.

/연합뉴스

펠리페 '천금 동점골'…11경기 연속 무패

부산 원정 1대1 무승부
승점 2점 앞선 선두 고수

광주FC 펠리페가 12일 열린 부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42분 페널티킥 동점골을 성공 시킨 후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프로축구 광주FC가 후반 막판 터진 펠리페의 동점골에 힘입어 부산아이파크와 비겼다.

광주는 12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부산과 K리그2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동준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막판 펠리페가 극적인 동점 골을 터트리며 무승부를 이끌었다.

지난 3월 첫 맞대결에 이어 또다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치열한 승부경쟁을 다음으로 미뤘다.

6승5무(승점 23점)를 기록한 광주는 개막부터 무패 행진을 11경기로 늘렸고, 부산(6승3무2패·승점 21점)에 승점 2점을 앞서며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1,2위팀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이날 경기는 초반은 부산의 공세가 거셌다. 호물로가 전반 7분, 9분 연달아 슈팅을 때렸고, 전반 17분 김문환의 슈팅도 있었다.

전열을 가다듬은 광주는 전반 중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왔다. 경기를 풀어준 건 역시 펠리페였다. 펠리페는 전반 18분 측면에서 돌파에 성공해 페널티박스 안으로 공을 넣어줬지만,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뒤이어 이희균이 두 차례 슈팅을 때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후반 들어 광주는 부산의 공격을 막고 역습하는 흐름으로 경기를 전개했다. 펠리페와 이희균이 적극적으로 부산 선수들에게 도전했다. 후반 22분 부산 이동준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것이 아쉬웠다.

광주는 실점 후 추격 의지를 불태웠다. 후반 28분 펠리페가 수비수 두 명을 제친 후 왼발 감아차기 슈팅을 시도했고, 후반 35분엔 윌리안이 시도한 슈팅이 골대를 아쉽게 빗나갔다.

투지를 보인 광주가 결국 일을 냈다. 후반 42분 펠리페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슈팅을 하는 도중 페널티킥을 얻었다. 펠리페는 직접 키커로 나서 동점 골을 기록했다.

양 팀의 치열했던 승부는 1대1로 마쳤다.

/박희중 기자

동강대, U리그 왕중왕전 '청신호'

전반기 조 3위 마감…17일 개막 후반기리그 1위 목표

동강대 야구부가 2019년 U리그 전반기를 조 3위로 마치며 왕중왕전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동강대 야구부(감독 홍현우)는 지난 11일 순천팔마구장에서 끝난 '2019 KUSF(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야구 U리그' 전반기 리그에서 D조 3위를 기록했다.

동강대는 10일 호원대와 5차전에서 정영웅 3루타, 백현종 연타석 홈런 등 장타쇼를 펼치며 10대4로 승리, 4연승을 달렸다.

하지만 11일 한일장신대와 최종전에서는 3대6으로 져 전반기를 4승2패(승점 8점)로 마무리했다.

동강대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리그에서 조 1위를 목표로 왕중왕전 진출까지 노린다.

왕중왕전은 전 후반 리그 성적을 합산해 조 3위까지 티켓이 주어진다. 동강대는 오는 17일 오전 9시 순천팔마구장에서 전반기 D조 1위였던 원광대와 맞붙는다.

한편, 동강대 축구부는 지난 10일 광주과기원 운동장에서 열린 U리그 6권역 조선대와 6차전에서 0대0으로 비기며 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동강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광주과기원 운동장에서 동신대와 7차전을 치른다.

동강대는 지난해 KUSF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며 운동부(부장 노재성 교수) 운영 및 선수들 경기력 향상 등에 힘쓰고 있다.

2004년 창단한 야구부의 경우 전국대학야구대회 2014-2016년 하계리그 3연패 위업을 달성하며 우승기를 영구 보관 중이다.

/김종민 기자